

## 거울에 비친 나의 초상

### My Own Portrait Reflected on the Mirror

#### 90년대 건축을 중심으로

김희곤 / 휴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Gon

#### 관점

비평가로서의 입장보다 실무를 하는 건축인의 시각으로 사무실 운영과정에 마주했던 개인적인 경험의 범위내에서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소한 경험이지만 더욱 더 실질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포럼은 다분히 현실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그 목적은 다분히 포럼을 통하여 현재의 건축환경을 재구성하려는 방향으로 지향하리라 판단된다. 또 한가지는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적인, 긍정적인 접근태도이다.

“근대의 인간성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생활 조건아래서는 쓰이고 있지 않은 잉여의 모든 시적역량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하나의 명확한 목적을 향해 결집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란 현재를 묘사하거나 과거를 부활 또는 요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니체-

#### 옛보기

20세기 중반 이후를 하나의 축으로 놓고 90년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미국의 Time지가 분류한 시대구분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1946~60: 독립시대

1960~73: 혁명시대

1973~89: 번영의 시대

여기서 90년대 건축 전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영의 시대인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건축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중동건설붐과 더불어 해외기술 축

적과 국내건축붐으로 곧바로 연결지어지면서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기술축적과 상호협력 기회를 가진 점은 또 하나의 성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성과 이면에는 많은 허상을 간직하고 있다.

200만호 건설, 신도시건설은 줄속으로 주거환경의 실험적 실천은 뒤로하고 용적 채우기, 세대수 채우기가 90년대 건축전반에 양에 대한 포만감으로 이어졌다.

21세기를 예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우리에게 익숙한 “밀레니엄 버그” 용어 하나로 현재 우리는 전자시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아나로그식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을 넘어서 “점점 더 축소화됨과 동시에 점점 더 확장”이라는 전자시대 양면성이 더욱 확대되리라는 인간생활을 보존하는데 그 기저를 둔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 즉 가상적인(Virtual) 건축의 흐름은 하이테크에 대한 열망속에서 발전된 생각을 기초로 하는데 아마도 2천년대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허구적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반면 두번째 방향은 현실을 추구하고 있다.

“적어도 다음 세대까지는 가상적 건축이 여전히 지배할 것이라 생각한다.”

-Youichi Lijma-

#### 사례보기

번혁의 시대 중심축으로 결론지어지는 IMF의 시대 90년대를 보기로 하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심층사상적 배경은 “이제까지 우리의 시각에서 소외되었던 그 이면을 재조명하는 사상”이라고 김열규 교수가 지적한 말을 주목하자.

지금까지 허와 실이 교체되는 것이다.

### 1) 건축사법(90년대)

그간의 건축사법 변천을 보면 건축인 스스로가 목에 방울을 달고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 종합에서 법인, 단독, 또 최근 해외 진출을 위한 사무실 규모 등 그 내용의 이면에는 건축사 머리수와 평수와 직원수면 마치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게 된다.

감리제도 또한 동상이몽이다. 목에 방울색깔과 종만 같았을 뿐이다. 창조적인 직업인의 장인정신은 실종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다.

### 2) 다세대/다가구 주택

이 기획상품은 수도 서울을 지극히 짧은 시간에 누구 웃인지 모르면서 새 옷이라고, 공짜라고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서 모두 갈아 입었다.

논리의 기반은 현 집 새 집 짓고 매달 월세와 공사비 제외한 현금도 생긴다는 투자논리였다. 반지하도 방을 만들고 방수만 많으면 만사형통인 요술 방망이였다. 문제는 한시적 성과의 이면을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 3) 재개발 APT/신도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좀도둑이면 재개발 APT는 기업형 도둑이다. 어떤 장소든 판잣집 헐어내고 고층 APT건설되면 도시발전이었다. 주변경관과 교통여건, 도시기반시설은 고려되지 않아도 평수 큰 새 집이 공짜로 생기니 모든 삶의 논리는 시장경제논리에 질식당하고 말았다.

신도시 또한 주거환경 실험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유닛의 변화에 만족하고 APT의 문제점인 공동체의식 부여를 위한 공간구축은 사업성에서 밀려났다.

### 4) 현상설계

모름지기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사회기반인 구조적인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설계경기는 좋지 않은 제도이다. 설계경기는 일을 너무 빠르게 처리토록 만든다. 일을 얻기 위해 설계경기를 할 수 있지만 설계경기가 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 최창규—

설계경기가 많을 이유는

“설계경기 규정이나 운영규정 미비와 건축발주자측, 응모자, 심사위원들이 이 규정을 엄수하지 않는다는 점, 발

주자측의 지나친 탐욕과 물이해로 빚어지는 독선의 작용, 심사위원들의 무능이나 정실,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불공정심사, 갑질로 로마 사회상황속에서 관료주의와 상업주의의 상식이 순수하고 공정한 운영질서에 무언중 작용하기 때문이다.”  
— 최창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설계경기의 경우 그 심사위원 구성은 주최측의 고유권한으로 비건축인 심사위원은 대개 실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대학교수들로 이뤄진다. 최근 설계경기의 대부분은 외관설계경기, 투시도 경기, 모형제작경기, CG(도면 표현력 경기)로 치달는다. 그나마 얼마전 조달청위임의 경우 1, 2차 구분 등 몇몇 설계에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은 고무적이다.

### 5) 외국건축가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유독 IMF전 90년대 외국건축가들이 국내강연회, 합작프로젝트, 현상설계 공동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접촉의 기회를 넓혀 그간의 갈등을 많이 해소했다. 또한 그 동안 우리의 기반이 허약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계기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 근본에 대한 반성 노력이 아니라 겉, 포장지에 대한 베끼기 흉내내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문화는 흐른다”,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출발한다” 새삼 논리를 들추고 싶지 않다. 7,80년대초 일본에서 보듯 세계화가 스스로의 자신감회복, 노력하는 당당함을 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희망의 틀

### 1) 세계의 구조적 틀 속의 한국

미소냉전의 이데올로기 해체이후 강력한 미국화만이 존재한다. 미국을 견제할 세력들만 존재한다.

미국화란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적자생존의 시장논리의 틀을 거부할 수 없다. 이제는 건축도 미국화의 구조적인 틀위에 한국적인 모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

아시아권에서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의 예를 살펴보자.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베지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나고야에 일본 최고 높이의 JR Center 를 건설하고 있다.

지진의 위험 중심에 그것도 공공역사위에 자연의 재앙을 극복하는 창조적 실험을 일본인들이 하고 있다. 최고 높이가 아니라 지진에 정면 도전하는 사고의 진전이다. 지진에 대비하는 강력한 매트기초, 댐퍼구조(철골), 게다가 형태도 공중피진